

지자체·대학·혁신기관 협력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우수사례

5년간 사업비 3천억...인재 양성·기업 지원·기술 개발 추진 신재생에너지 융합전공·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 등 성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 본부장 박성수) 주도로 지난 2020년 시작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RIS는 광주·전남도와 15개 대학, 광주전남테크노파크 등 43개 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 지난 5년간 총 사업비 3천억원(국비 70%·지방비 30%)으로 인재 양성, 기업 지원, 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4차년도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우수사례 1- 전문인재 양성해 지역 산업체 연계

전문대학 에너지트랙 융합전공은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변환 융합전공의 전문학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이 융합전공 분야는 2023년부터 학생을 모집, 실무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2024년 현재 지역산업 맞춤형 창의·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지원한 교육 환경 구축은 핵심 분야인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역 수요와 혁신인재 육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주요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참여 대학 가운데 순천제일대학교의 창의관(6층 5610호실)은 다양한 프로젝트 랩을 진행하는 학생 동아리실로 사용하도록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 진행을 고려해 방음 필름 공사, 방음 흡음판 시공, 방음 암막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며 학생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해당 프로젝트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3D프린터, 산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구와 레이저 조각기, 인두기 등의 구매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CES지원 프리젠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제공

대학교육혁신본부는 교육적 환경 구축과 동시에 참여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취·창업 전문가 특강 '포스코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동향 및 기업의 과제',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및 고려제강 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전력 발생 현장과 산업체 현장을 견학하고 전력 변환 기술 특강을 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진, 열정적인 주임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에 꾸준히 응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3일부터 이를

간 소노벨 전원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산업전기응용부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참여 학생들과 참여 교원들은 프로젝트 랩 작품을 논문화해 ▲스마트 팜을 이용한 효율적인 작물 재배 연구 ▲집벌을 활용한 곱충더 ▲자유로운 공간에서 사용하기 쉬운 Air Mouse 연구 ▲의류보관과 편의성을 증진시킨 스마트 옷장 ▲아두이노 조도 센서를 이용한 LED 우산 ▲리니어모터 실린더를 이용한 페트병 압축기 ▲블루투스 이어폰의 스피커 케이스 등을 선보이며 8개 팀이 출품

논문을 발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처럼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 2월 졸업한 융합전공 참여 학생들은 지역 내 기업에 총 1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업자들은 포스코케미칼 1명, 포스코아이씨티 1명, 포스코엔텍 1명, 화신전력 1명, 범우계전 1명, 에스알이엔지 2명, 하나시스템 1명, 밝은전력 1명, 기경우산 1명, ㈜영동이엔씨 2명 등으로 지역 산업체와 에너지산업계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우수사례 2- 선박도 친환경 시대...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 확립

선박 운항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 선박설계, 신소재 이용 등의 연구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 협력 프로젝트 기반 연구 강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 '친환경 선박, HSE&ICT 융합기술'의 기업 협업과제를 추진, 기술 사업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수익 창출과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1단계는 산학융합 R&D 선도 대학의 역할과 지역 기업 수요에 의한 전문적인 연구 기반 커리큘럼을 모색한 데 이어 2단계는 기술 고도화 정착·지역경제 협업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연속 과제의 최종 단계 결과물 완성·도달 패키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다.

이 사업은 2개 기업과 총 150명의 학생이 참여해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해 기업은 4년간 39명 고용, 53건(1억7천500만원)의 기술 이전, 1천500여원의 원가 절감, 488여원의 매출 증대 성과를 도출한 것은 물론, 대학은 27건의 논문과 14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다이지자

광주대, 기업가정신센터 문연다

오늘 호심기념도서관 6층 개소식 개최

광주대학교가 재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기업가정신센터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8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9일 교내 호심기념도서관 6층에서 광주대 기업가정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김동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이정선 시교육감,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등 지역 유관기관 20여곳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대 기업가정신센터는 재학생에게 프로젝트 기반 현장 실습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성공적 창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1학부(과) 1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사업단, GTEP사업, 학교기업 이모든 등 교내 기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화 연계를 통해 발생한 유·무형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대학 자립과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김동진 총장은 "혁신적인 사고와 실패를 두려워 않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광주대 싱크탱크 '기업가정신센터'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센터 활성화를 통해 재학생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이지자

도교육청, 글로벌교육박람회 안전계획 수립

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종합상황실 24시간 체제 유지

전남도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안전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제출했다. (사진)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교육감이 전남 여수시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안전관리종합계획서'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박람회 실현을 다짐했다.

도교육청은 최상의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박람회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사전 수요 조사와 분석을 통해 면밀한 안전관리 지표를 세웠다.

우선 안전재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시간대별 관람객 밀집 예상 및 교통·주차 상황 등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박람회장 혼잡도 관리를 위해 ▲북



문광장 ▲박람회장 ▲한국관 앞 등 3개 대구역 설정했으며, 박람회장 동시 최대 체류 예상 인원을 4만여명으로 산출해 이에 따른 세밀한 관람객 동선 계획도 수립했다.

박람회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상

황실은 24시간 비상 상황 체제로 유지된다. 이곳에서는 관람객 현황 모니터링, 일일 상황 파악·처리, 운영 지원 등 박람회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다이지자

내일부터 '갑진독서(甲辰讀書)' 도서관 문화마당

광주시교육청은 8일 "오는 10-11일 광주시청 시민광장,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립도서관과 함께 '제12회 도서관 문화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마당은 '갑진독서(甲辰讀書)'라는 주제로 광주지역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학교도서관·대학도서관·점자도서관 등 독서단체 46개 기관이

참여해 강연, 작가 만남, 체험 부스, 독서 토크 등 온 가족이 책과 함께하는 독서 축제를 마련했다.

사전 행사로 10일 오후 7시 전일빌딩 245에서 버스커 박준현의 공연과 '일상을 번역한다는 것'을 주제로 황석희 번

역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11일 본 행사는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펼쳐지며 당일 현장 접수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대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이지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지치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일이 밝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지원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